

# 고성 DMZ평화의 길 'C코스' 이르면 연내 개방

이동명 | 승인 2020.08.18 | 16면

**통일전망대·보존GP 탐방 코스  
국방부·유엔사령부 개방 합의  
군, 청소·지뢰탐지 등 준비 분주**

[강원도민일보 이동명 기자] '고성 DMZ평화의길 C코스'가 이르면 연내 개방될 전망이다. C코스는 통일전망대~88통문~보존GP(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829GP)~88통문~통일전망대 구간을 차량으로 탐방하는 코스다.

17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유엔군사령부는 최근 보존GP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2021년 상반기 개방이 예상됨에 따라 GP 시설내부 곰팡이 제거와 실내 청소, 촘촘한 지뢰탐지 등 개방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폭우로 유실된 도로 복구작업과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도 진행되고 있다. 안내요원·해설사·차량 확보 등 운영시스템 준비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도 추진 중이다.

고성군은 최근 88통문 인근 통문통제소 신축공사와 통문~보존GP 도로 3388m 가드레일 설치, 콘크리트 포장 776㎡, 3중 철조망 펜스 300m, 낙석 방지책 50m, 화장실, 표지판 등 C코스 기반공사를 마쳤다.

1953년 휴전협정 직후 남측에 처음 설치된 군사감시시설물인 보존GP는 남·북 군사분계선과 200여m 떨어져 있고, 북한군GP와 거리가 580여m에 불과해 휴전선 155마일 전선에서 남·북이 가장 가깝게 대치했던 현장이다. 경계임무가 2018년 11월 종료됐다.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른 감시초소 시범철거 과정에서 존치결정이 내려져 원

형 보존되고 있다.문화재청은 보존GP를 등록문화재 제752호로 등록했다.보존GP에서는 외금강산과 해금강 일대를 볼 수 있다.

한편 금강산전망대(717OP)를 도보나 차량으로 탐방하는 평화의길 AB코스는 오는 10월쯤 운영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동명



**이동명** Idm@kado.net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